



##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과 치료중재 효과크기 검증\*

김 경 희\*\* · 이 지 경\*\*\*

### Domestic Research Trend of Music Therapy for Hospice Patients and Verification of Effect Size in Therapeutic Intervention\*

Kim, Gyeong Hui\*\* · Lee, Ji Kyung\*\*\*

#### ABSTRACT

**[Purpose]**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in domestic music therapy for hospice patients and verify the effect siz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Method]** In total, 23 journals were selected, and the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by collecting data in three categorie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2) intervention-related characteristics, and (3) effect size of the therapy. Hedge's  $g$  was used to calculate the effect size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Results]** First,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hospice patients participants, these were mostly adults and the elderly. However, although not a large number, there were stud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types of cancer were varied. Second, there were a number of inpatient hospices in intervention as the setting. The number of therapy sessions was usually less than 10 and the session duration was 20-40 minutes or less. Third, the effect siz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 for hospice patients was verified. To that end, we combined  $t$ -scor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literature, finding that sessions had a medium or high effect on average. **[Conclusion]** In su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domestic music therapy for hospice patients and verify the effect size of therapy interventions. In terms of the recommende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 propose that, given the limited literature on the topic,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generate more data and verify the effect size. The findings of such studies could help support the planning of music therapy for hospice patients.

**Key Words** : Hospice Patients, Music Therapy, Verification of Effect Size, Domestic Research, Trend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22년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제 1저자, 경성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석사과정 졸업(fansa@naver.com)  
Master's Degree Graduate, Dept. of Music Therapy, Kyung Sung University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교수(jikyunglee@gmail.com)  
Professor, Dept. of Music Therapy, Kyung Sung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에는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질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유진, 2022). 인간이 예방과 질병 치료에 전력을 다하여 살아있는 동안 좋은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좋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한 개인의 욕구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김석란, 2016). 웰빙(well-being)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웰다잉(well-dying)은 ‘인간답게 죽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최혜진, 2019).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2018년부터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권송은, 2022).

호스피스(hospice)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또한 2008년 7.3%에서 2020년 23%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는 가운데(보건복지부, 2020), 201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약 154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통계청, 2017). 회복과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 암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접근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남아 있는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사회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김은정, 2018).

대체로 호스피스 치료는 질병의 말기부터 사별 기간에 걸쳐 개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포괄적인 돌봄을 의미한다(김시영, 2008). 치료 실행 시기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질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료 형태로 시작되므로 그 시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암의 시간적 경과로 치료 형태를 구분하면, 초기 환자에게는 근치적 치료(curative treatment)와 완화 돌봄을 함께 실시하고, 말기 환자는 실질적인 완화와 돌봄 치료를 적용한다(이효정, 2022). 호스피스 환자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감과 절망감 등의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겪고,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상태가 저하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임수란, 2017). 그러므로 환자의 삶 전체의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호스피스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은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이며, 빈번히 일어나는 심리적 증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김남초, 2002). 이와 더불어,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도 적용되고 있지만 부작용에 따른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비(非)약물적 요법으로써 음악치료는 이러한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영적 영역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정, 2018). 음악은 죽음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필요를 채우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며,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불안과 우울을 낮춰주고, 통증으로부터 잠시 주의를 돌려 그것을 잊게도 해준다(문지영, 2007). 따라서 이들에게 삶을 편안하고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고 고통을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유형으로 음악치료가 활용될 수 있었다.

2021년도에 수행된 임수란, 박혜영의 연구(2021)에서 노래 회상 음악치료는 호스피스 환자들의 불안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다. 치료 세션에 참여한 대상들은 노래 회상 기법이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켰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은혜, 최성은(2012)도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수준에 따른 그들의 정서 및 스트레스에 음악치료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통증 자각 정도에 따라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감상하게 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통증과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반응하였다. 이처럼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음악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으며(이은혜, 최성은, 2012; 임단아, 2017), 특히 2000년대부터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결과를 밝혀내고 있지만, 연구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치료 대상군에 비해 적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헌의 수가 제한적이었다고 해도 이제까지 진행된 음악치료와 호스피스 환자에 관한 연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게 해주는 시도가 드물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국내연구 동향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음악치료 미래의 변화와 전망은 호스피스 환자 대상 음악치료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황은영, 2016).

또한 과거의 논문에서 다양한 치료대상에게 실시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라고 하지만(김지연, 김영신, 2009; 박미혜, 2006; 배정화, 최성규, 2004; 오지은, 2015; 이수현, 2009) 정확하게 음악치료 중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치료 중재의 효과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소 제한적이었다(서보순, 이지경, 2021). 음악치료가 막연히 ‘효과가 있다.’ 라는 보고만으로는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인 검증기반을 가져야만 치료대상자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치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가 치료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음악치료에 관한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음악치료의 중재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효과크기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국내연구의 일반적 특성(참여자의 수, 연구대상의 발달단계, 연령, 투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국내연구의 중재 관련 특성(중재자,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 유형, 중재집단, 중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중재기간,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신뢰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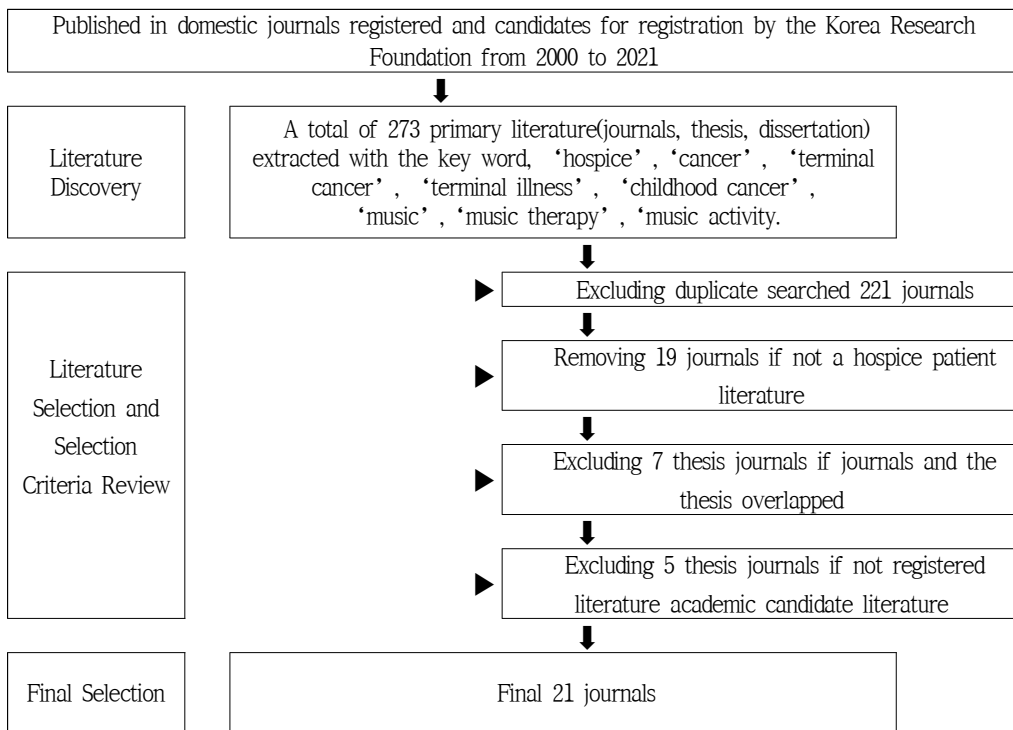
#### 1) 분석대상 문헌 선정과정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표된 호스피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채택하여 탐색하였다. 문헌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채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021년까지 게재된 문헌들을 찾기 위하여 ‘호스피스, 음악’, ‘암, 음악’, ‘말기 암, 음악’, ‘말기 질환, 음악’, ‘소아암, 음악’, ‘호스피스, 음악치료’, ‘암, 음악치료’, ‘말기 암, 음악치료’, ‘말기 질환, 음악치료’, ‘소아암, 음악치료’, 호스피스, 음악활동’, ‘암, 음악활동’, ‘말기 암, 음악활동’, ‘말기 질환, 음악활동’, ‘소아암, 음악활동’, ‘호스피스, 음악중재’, ‘암, 음악중재’, ‘말기 암, 음악중재’, ‘말기 질환, 음악중재’, ‘소아암, 음악중재’ 등의 다양한 검색어 조합이 투입되었다. 논문 전문 검색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s://www.keris.or.kr>)’, ‘구글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co.kr>)’,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 ‘과학기술지식인프라(<https://scienceon.kisti.re.kr>)’, ‘디비피아(<https://www.dbpia.co.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 그리고 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ks.ac.kr/>)를 이용하여 대상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다.

둘째, 1차 선별 단계에서 발견된 전체논문은 273편이었으며, 이 중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221편을 제외하여 52편으로 줄어들었다. 2차 선별 단계에서 연구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호스피스 환자가 대상이 아닌 논문 19편을 제외하였으며, 3차 선별 단계에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위논문 7편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지의 경우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가 아닌 논문 5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최종 21편의 문헌이 채택되었으며, 논문 수집 시 논문의 제목, 초록 또는 주제어 등의 검색만으로는 실험연구의 상세한 내용과 참여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고 확인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분석논문 선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igure 1> Analysis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 2. 자료 분석 방법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에 관한 국내 논문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선정된 논문들은 원종례, 주용수(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양식을 기초하여 연구대상 및 중재 관련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 연구 참여자의 수, (2) 연구 참여자의 발달단계, (3) 연령, (4) 평균연령, (5) 투병유형을 자세하게 파악해보았다. 최종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그리고 통합연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할 때 이들을 연구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2)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 중재자, (2)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 유형, (3) 중재집단, (4) 중재방법, (5) 독립변인, (6) 종속변인, (7) 중재기간, (8) 측정도구, (9) 신뢰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Table 1> Analysis Criteria**

Area	Analysis Criteria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Number of Participants	
	Development Stage of Participant	
	Age	
	Cancer Typ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Intermediary	
	Intervention Place / Hospice Type	
	Therapeutic Group	
	Intervention Method	Active Participant
		Receptive Participant
		Mixed Participa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tervention Period	
	Measurement	
	Cronbach $\alpha$	

**3)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 산출**

세 번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Hedge' s의  $g$  산출법을 사용하였다. Hedge' s의  $g$ 는 Hedges(1981)가 제안한 효과크기 지표로 기본적으로는 평균 간의 차이를 전체집단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집단별 사례 수에서 1을 빼어 계산함으로써 Cohen' s  $d$ 에 비해 표집 수가 적거나 집단 간 사례 수 차이가 날 때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효과크기 계산 방법이다.

Cohen(1988)에 따르면, 효과크기 .20은 작은 효과, .50은 중간 크기 효과, .80 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Hedge' s의  $g$  산출 공식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g = \frac{\bar{x}_1 - \bar{x}_2}{s^*}$$

$$s^* = \sqrt{\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Figure 2> Hedge' s g Formula

### III. 연구 결과

#### 1.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내연구에 언급된 참여 환자의 수는 모두 26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10명인 연구가 2편, 20명인 연구 2편이었으며, 이 외에도 26명, 39명, 40명, 44명, 51명이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발달단계는 성인과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편씩 나타났다.

연령별 참여자 현황은, 유아와 아동이 51명, 성인이 44명, 노인이 32명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편의 연구만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가 3편, 60세 이상인 경우가 1편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투병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폐암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이 25명, 췌장암이 23명, 기타 암 23명, 유방암 20명, 간암 7명, 자궁경부암 4명, 대장암 2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난소암, 뇌종양, 담관암, 담낭암, 맹장암, 방광암, 신장암, 육종암, 자궁내막증, 전립선암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질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음악치료에 참여한 호스피스 환자의 수는 모두 22명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는 2명인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명이 3편, 3명이 1편, 6명이 1편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발달단계는 성인과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2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유아와 아동 모두 참여한 연구가 1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참여자는 노인이 10명, 성인이 5명, 유아와 아동이 5명으로 나타났다. 10편의 질적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에 대한 정보는 문헌에서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포함하지 못하였다. 환자들의 투병유형은 백혈병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 자궁암 4명, 간암 2명, 담낭암 2명, 유방암 2명, 전립선암 2명, 폐암 2명이었고, 그 외에도 피부암, 골수암과 방광암이 각각 1명씩 있었다.

## 2.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

<표 3>은 양적연구에 포함된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이 나타나 있다. 총 9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치료중재자는 7편의 논문에서 음악치료사, 나머지 2편의 논문에서는 간호사였다.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 유형은, 입원형 호스피스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병원학교가 각각 1편씩 나타났다. 중재 집단은 7편이 개인 음악치료 세션이었고, 나머지 2편은 그룹 음악치료 세션이었다.

중재방법은 최혜진, 황은영의(2019)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양식에 기초하여 능동, 수용, 그리고 혼합적 참여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호스피스 환자의 능동적 참여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환자의 반응 수준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Robb et al., 2008), 수용적 참여는 치료사가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을 듣거나 녹음 음악, 선호 음악 감상, 회상 등의 경우를 말한다(Bruscia, 1987). 능동적 혹은 수용적 참여 모두를 포함한 경우는 혼합적 참여이다. 분석 결과 수용적 참여가 4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능동적 참여 3편, 혼합적 참여가 2편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은 회기 수와 세션 소요시간으로 분류하였다. 회기 수에 따라 살펴보면, 16회기 이상이 1편, 6회기~10회기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5회기는 2편, 1회기는 3편으로 나타났다. 세션 소요시간은 50분으로 진행된 경우가 1편, 20분~40분으로 진행된 연구가 8편이었다.

<표 4>는 질적연구에 포함된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이 나타나 있으며, 총 10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중재자 유형은 10편의 연구 모두 음악치료사가 중재하였다.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 유형은 입원형 호스피스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형 호스피스와 병원학교가 각각 2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소아암 종합병원 1편,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1편 있었다.

중재 집단은 10편의 연구 모두 개인 음악치료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중재방법은 능동적 참여와 혼합적 참여만으로 이루어진 문헌이 각각 5편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은 회기 수와 소요 시간으로 분류하였다. 회기 수는 11~15회 기가 3편, 6~10회 기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2~5회기는 3편이었다. 세션 소요 시간은 50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1편, 20~40분으로 진행된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분 미만은 1편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rticipants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1	2	3	4	5	1	2	3	4	5
Kin, E. J. , Kim, K. S. (2014)	10	Adult/ Elderly	N/A	N/A	Kim, K. H. (2010)	2	Adult	1 50's 1 60's	1 cervical cancer 1 liver cancer
Kim, E. H. (2015)	40(experimental group=20/ control=20)	Adult/ Elderly	1 below 40 39 b/t 41 & 81	N/A	Kim, Y. R. (2009)	2	Adult/ Elderly	1 60's 1 70's	1 cervical cancer 1 liver cancer
Park, S. Y. (2016)	20(AME=10 RME=10)	Adult/ Elderly	20 b/t 40 & 80	4 stomach cancer/ colorectal/cancer/gallbladder cancer/rectal cancer/cervical cancer/ 2 pancreatic cancer/Kaposi sarcoma/lung cancer/ cholangiocarcinoma/liver cancer/ brain cancer/solenoma	Park, J. H. (2011)	2	Child	2 10's	2 Leukemia
Seo, B. R., Hong, H. S. (2010)	44(experimental group=23 control=21)	N/A	N/A	10 stomach cancer/17 lung cancer/8 liver-pancreatic cancer/ 9 others	Oh, J. E. (2015)	3	Adult/ Elderly	1 40's 1 60's 1 80's	1 lung cancer/ 1 skin cancer/ 1 gallbladder cancer
Yoo, H. S. (2002)	26(experimental group=14 control=12)	Adult/ Elderly	2 b/t 20 & 39 24 b/t 40 & 79	6 lung cancer/3 breast cancer/ 5 liver cancer/4 stomach cancer/8 others	Lee, S. (2006)	1	Adult	1 50's	1 bladder cancer

Lee, E. H., Choi, S. E (2012)	20(mild pain group=11/severe pain group=9)	Adult/ Elderly	20 b/t 40 & 79	6 stomach cancer/3 lung cancer/ breast cancer/2 cervical cancer/ 2 lymphoma/6 others	Lee, Y. E. (2020)	2	Elderly	1 60's 1 70's	1 lung cancer 1 breast cancer
Cho, G. R. (2009)	51	Infant/ Child	34 b/t 6 & 10 17 b/t 11 & 16	N/A	Lee, J. H. (2004)	2	Infant/ Child	2 b/t 5 & 7	1 bone cancer 1 Leukemia
Hong, M. S. (2008)	39(experimental group=25/control group=19)	Adult	N/A	11 lung cancer 12 liver-pancreatic cancer 16 breast cancer	Lee, C. Y. (2015)	1	Child	1 50's	1 Leukemia
Hong, J. I., Kim, K. S. (2021)	10	Adult/ Elderly	5 50's 3 60's 2 80's	liver cancer/ovarian cancer/gallbladder cancer/cecal cancer/bladder cancer/renal cancer/stomach cancer/prostate cancer/pancreatic cancer/lung cancer	Jeon, M. H. (2005)	1	Child	1 50's	1 Leukemia
					Hwang, E. J. (2017)	6	Adult/ Elderly	6 b/t 50 & 80	2. prostate cancer 2 cervical cancer/1 breast cancer/1 gallbladder cancer

\* N/A = Not Applicable ; \* b/t=between; 1=Researcher; 2=Number of Participant of Research; 3=Development Stage of Participant; 4=Age; 5=Cancer Type

<Table 3> Intervention Related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Research

1	2	3	4	5	6	7	8	9	10
Kin, E. J. , Kim, K. S. (2014)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group	Active (sing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expressing emotion, moving to music)	Music Therapy	State Mood	8 50min.	Profile Of Mood States(McNair, 1971)	N/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im, E. H. (2015)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Mixed (Listening, Singing, & Talking to Songs)	1 song activity	Ache	1 20~30 min.	Visual Analogue Scale (Hayes & Patterson, 1921)	N/A
						Mood			
Park, S. Y. (2016)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AME Active (singing, discussing & making songs)/ RME Acceptance (listening to the song)	1 session Music Therapy	Ache	1 20min.	Numerical Rating Scale	N/A
						Fatigue			
Seo, B. R., Hong. H. S. (2010)	Nurse	Advisory Hospice	individual	Acceptance (music appreciation)	Music Therapy	Ache	3 40min.	Brief Pain Inventory-Korean Version (Pain Research Group, 1999)	N/A
						Depression		Self 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	
Yoo, H. S. (2002)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Acceptance (music appreciation)	Music Apprecia tion	Anxiet -y	1 35min.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1(Spielberger, 1983)	Tenpar ature Anxiety = .86

Lee, E. H., Choi, S. E (2012)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Acceptance (music appreciation)	Music Apprecia tion	Music Prefer ence	6 30min.	Music Preference Questionnaire (Hartsock, 1982)	N/A
						Ache		Visual Analogue Scale (Hayes & Patterson, 1921)	N/A
						Emotion		Numerical Rating Scale	N/A
						Stress		Profile of Mood States(McNair, 1971)	.91
Cho, G. R. (2009)	Music Therapist	hospital school	group	Active (singing, improvising, listening to music, playing instruments)	Music Therapy	Mood	20 40min.	Subjective Exercise Experience Scale (McAuley & Courmya, 1994)	N/A
						Comfort			
Hong, M. S. (2008)	Nurse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Acceptance (Song appreciation)	Music Therapy	Ache		Visual Analog Scale (Hayes & Patterson, 1921)	.78
						Quality of Life		Music Preference Questionnaire	N/A
Hong, J. I., Kim, K. S. (2021)	Music Therapist	home hospice	individual	Mixing [song conversation (recalling), listening & make a song, sing a song, play an instrument]	Song Centered Therapy (Retrospect -ect)	Qualit y of Life	4 25min.	Hospice Quality of Life Scale (Kim, et al, 2007)2007)	.95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 and Patient (Archbold, 1986)	.96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 N/A=Not Applicable; 1= Researcher; 2= Therapist; 3= Intervention place/hospice type; 4= Intervention group; 5= Intervention method; 6= Independent variable; 7= Dependent variable; 8= # of session(length); 9= Measurement; 10= Reliability

<Table 4> Intervention Relate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1	2	3	4	5	6	7	8	9	10
Kim, K. H. (2010)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home hospice	individual	Mixture (listening, singing, song, recalling & talking about a song)	song autobiography activity	acceptance of death	10 30~40 min.	recording	N/A
								observation record	
Kim, Y. R. (2009)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Mixture (listening & singing a song, playing an instrument, improvising)	song psychotherapy	life review	13 40min.	record	N/A
								observation record	
Park, J. H. (2011)	Music Therapist	hospital school	individual	Active (making music, making music videos)	making music & applying music videos	Appearance Satisfaction/self esteem	3 80min.	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 (Little, Axon, & Cynthia, 2001) / Self-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67)	.91
								N/A	
Oh, J. E. (2015)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Active (use of voice: breathing, toning, breathing, singing)	structured voice utilization program	psychological stability	4 20min.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Ryff, 1995)	.92
								record / Researcher's Journal / Verbal · Non-verbal response analysis	
Lee, S. (2006)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al	Blending (listening to, sing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musical autobiographical experience	quality of life	7 20~40min.	record, recording, Researcher's Journal, observation record	N/A
Lee, Y. E. (2020)	Music Therapist	home hospice	individual	Mixture (listening & reviewing (conversing) songs, singing)	song psychotherapy	psychological stability	3 (N/A)	record, nonverbal response sheet	N/A

Lee, J. H. (2004)	Music Therapist	children's cancer general hospital / home hospice	individu- -al	Active (sing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Music Therapy	psychology	10 35min.	The Facial-Expression Fear Scale (Ann & Douglas, 1990)	N/A
								interview, video analytics	.76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pielberger, 1970)	
Lee, C. Y. (2015)	Music Therapist	hospital school	individu- -al	Active (improvisation)	improvisation	growth experience	12 30min.	record, recording	N/A
Jeon, M. H. (2005)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child hospice)	individu- -al	Active (playing an instrument, singing & making a song, exploring song lyrics)	Music therapy based on the environmen- tal support model	child reaction	9 30-40min.	record, record progress activity	N/A
Hwang, E. J. (2017)	Music Therapist	inpatient hospice	individu- -al	Mixture [listening to a song, singing a song, having a song conversation (reminiscence)]	song-center ed music therapy	patient response	12 15min.	transcript, observation record, verbatim	N/A

\* N/A=Not Applicable; 1= Researcher; 2= Therapist; 3= Intervention place/hospice type; 4= Intervention group; 5= Intervention method; 6= Independent variable; 7= Dependent variable; 8= # of session(length); 9= Measurement; 10= Reliability

### 3.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 검증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효과크기 산출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 양적연구 문헌 5편이 최종으로 채택되었다. 이 내용을 요약한 <표 5>가 다음에 제시되었다.

<Table 5> Quantitative Research Mean, SD, & Effect Size

Quantitative Research	Dependent Variab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ffect Size
		Mean	SD	Mean	SD	
Kim, E. H. (2015)	Ache	3.55	2.73	3.9	2.44	.64
	Mood	6.19	2.7	5.79	1.86	.89
Park, S. Y. (2016)	Ache	2.1	2.77	3.3	3.27	1.05
	Fatigue	3.1	2.85	4.8	3.52	.71
Seo, B. R. Hong, H. S. (2010)	Depression	50.17	8.83	56.52	5.56	.26
	Ache	3.82	1.06	4.30	.98	.43
Yoo, H. S. (2002)	Anxiety	29.43	11.17	43.33	13.69	.56
Hong, M. S. (2008)	Comfort	3.89	.35	3.64	.34	.36
*Total Mean of Effect Size						.61

논문 2편(서바른, 홍해숙, 2010; 홍미순, 2008)(.26 ~ .43 / .36)을 제외하고는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가 중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물의 종속변인은 각각 ‘통증’, ‘기분’ (김은혜, 2015), ‘통증’, ‘피로감’ (박신영, 2016), ‘상태불안’ (유현순, 2002)이었다. 산출된 효과 크기의 범위는 .56 ~ 1.05이었다. 특히, 박신영(2016)의 연구에서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가 1.05로 크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음악치료 중재 국내연구 21편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고,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도 검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수가 26명 이상인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된 양적연구 문헌은 실험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처치를 넣어 준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에 비교가 이루어져야만이 치료 중재의 진정한 효과성을 논의할 수 있으므로 추후 실험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발달단계는 성인과 노인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6편으로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호스피스 환자의 연령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한 유현순(2017)과 이영은(20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질적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수가 1명~2명인 연구가 80%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적연구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 대상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다. 반면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 해석이나 의미에 목적을 가진 질적연구는 연구대상과의 인터뷰 혹은 심층 면접, 관찰 등을 통해 소수의 참여자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므로 양적연구와 비교해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연구 참여자의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양적연구와 유사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인과 노인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유아와 아동 대상 호스피스 음악치료 연구도 눈에 띄었다. 최근에는 이들을 위한 ‘완화의료 음악치료’도 적용되고 있다(박지혜, 2011; 전미혜, 2005). 소아·청소년 음악치료는 병원 안에서 아동의 사회성, 운동, 인지발달을 돕고,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서의 적절한 표출을 탐색하거나 권장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Davis, Gfeller, & Thaut, 2002). 입원한 소아·청소년들이 병원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자신의 치료과정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을 위해 음악을 통한 신체 활동,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한다(Barrickman, 1989).

양적·질적연구 모두 성인과 노인 대상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과 투병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아마도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논문은 성인과 노인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아동에 비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소아암 환자 발생률에 비해 연구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매년 1,500명 이상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9세까지 아동 질병 사망률의 1위가 소아암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영, 2011). 소아암은 성인 암에 비해 완치율이 확연히 높지만, 약 20%는 말기 소아암으로 진행되어 투병하기도 한다(이경은, 2017).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인에 비해 불확실한 예후 판정과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의 준비 부족 및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신체적 증상관리뿐만 아니라



편안한 임종을 위한 준비와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는 부모나 가족의 사별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강경아, 심송용, 김신정, 2005). 이러한 점에서 소아 호스피스에는 의학적 치료와 간호만이 아니라, 심리적, 심리 사회적 돌봄도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정여주, 2007).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투병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각의 투병유형에 따라 환자의 강점과 취약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사를 이들의 의학적 진단과 개인의 신체적 기능을 고려한 치료적 기술을 고안하여 음악치료 세션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 중 중재자와 관련된 양적연구를 분석한 결과, 음악치료사가 7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 유형은 입원형 호스피스가 가장 높았고, 중재 집단은 일대일 개인 세션을 진행한 경우가 77.8%를 차지하였다. 회기 수는 10회기 이하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5회기 이상은 드물었다. 중재 소요 시간은 20~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말기 암 환자 혹은 중신형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너무 많은 세션 회기나 긴 소요 시간은 무리일 수 있으므로,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10회기 이상 혹은 40분 이상의 치료 중재를 실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또한 채택된 양적연구의 중재 관련 특성 중 측정도구와 신뢰도를 살펴보면 종속변인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다. 하지만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논문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측정도구는 환자의 향상도, 진행도와 같은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높은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연구의 중재 관련 특성 중 음악치료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중재자는 음악치료사가 100%를 차지했다. 중재장소 및 호스피스는 양적연구와 유사하게 입원형 호스피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재 집단은 개인 세션을 진행한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음악치료 중재가 거의 일대일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형 맞춤형 음악치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중재방법과 관련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에서의 중재방법은 능동적 참여와 수용적 참여의 비율이 유사했다. 반면 질적연구의 중재방법에서는 수용적 참여의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을 분석하기 전에는 호스피스 환자의 특성상 음악 감상과 같은 수용적 중재방법이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능동적 참여와 혼합적 참여가 오히려 다수의 문헌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능동적 참여의 음악치료 중재방법도 회기 수는 10회기 이하, 치료세션 시간이 40분 이하로 짧게 구성되는 것이 환자들에게 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박신영(2016)의 논문에서는 능동적 참여의 중재방법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능동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음악치료는 입원형 호스피스, 즉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연도별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환자 분포에 의하면 입원형 호스피스가 62.6%를 차지하고 있다(중앙호스피스 센터, 2022). 이것은 환자들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며, 독립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암 환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옥경, 2022). 그러나 최혜진, 황은영(2019)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자문형 호스피스 음악치료가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환자가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안정된 환경이어서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시되는 입원형 호스피스 음악치료만이 아닌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 음악치료 중재도 임상 현장에서 고려되기를 추천한다.

셋째, 효과크기 검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재의 효과크기 전체 평균이 .61로 중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대부분 논문에서 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의 파악이 어려웠다. 문헌 분석에서 채택된 양적연구 논문 중, 전체논문의 25% 이하의 연구만이 효과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음악치료 관련 실험연구가 효과크기 검증에 용이한 정보(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를 충실히 제공하는 문헌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치료사가 치료중재를 실시했을 때 다른 이보다는 치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음악치료사가 음악 기초, 임상 기초에서의 훈련과 자질을 키우고 환자를 위한 진단, 치료목표 설정, 실행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김소영, 2013). 무엇보다 치료적 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재를 시행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더 크게 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연구 동향에서 가장 많이 설정된 종속변인은 “통증 완화”였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가 약물을 대체하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은혜, 2015; 박신영, 2016). 실제로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난 세 문헌 즉, 김은혜 (2015), 박신영(2016), 그리고 유현순 (2002)의 연구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주요하게 다룬 영역은 ‘통증완화’와 통증으로부터 오는 ‘상태불안’을 완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모두 그룹 음악치료 세션보다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치료 세션이었다. 따라서 통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는 개인치료 세션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또한 중재방법은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들에게는 그것을 잊게 해 주는 능동적 참여와 수용적 참여를 함께 사용한 혼합적 참여 방법을 환

자에게 소개하여 ‘가창하기’, ‘노래토의’, ‘노래만들기’, ‘음악감상’ 치료기법을 적용하였다(김은혜, 2015; 박신영, 2016). 반면, ‘상태불안’과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환자에게는 수용적 참여방법을 추천하여 ‘음악감상’ 치료기법을 적용하였던 것이 치료의 효과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가 국내연구 동향을 자세히 조사하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이 연구는 국내에서 게재된 석, 박사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지만, 연구물의 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국내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논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나라마다 음악치료의 실정이 달라서 국내·외의 문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국내와 실상이 다른 국외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문헌을 살펴보며 국내·외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파악해볼 수도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다수의 중재 특성으로 구체적인 중재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및 치료적 논거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치료 방향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중재 방법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면 본 연구는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치료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그 효과크기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결과는 음악치료가 호스피스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다수의 논문에서 밝혀졌고, 그 외에도 환자의 기분 전환,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유익하였으며, 피로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본 연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Bae, J. H., & Choi, S. G. (2004). The study on singing with changed words of song to develop vocabulary abilities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1), 279-296.
- [배정화, 최성규 (2004). 개사를 통한 노래부르기가 정신지체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279-296.]
- Barrickman, J. (1989). A developmental music therapy approach for preschool hospitalized children. *Music Therapy Perspectives*, 7(1), 10-16.
- Brucia, K. E. (1987).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Brucia, K. E. (1989). *The dynamic of music psycho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

- Choi, H. J. (201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music therapy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최혜진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음악치료연구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i, H. J., & Hwang, E. Y. (201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music therapy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2), 75-102.  
[최혜진, 황은영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2), 75-102.]
- Chung, Y. J. (2007). Art therapy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in hospice car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4*(2), 227-246  
[정여주 (2007). 소아 호스피스의 암 환자 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14**(2), 227-24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8).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Silver Spring, MD 20910.
- Hong, J. I. (2019).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the quality of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f family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atients and caregivers.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홍정인 (2019). 음악치료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주 돌봄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ong, M. S. (2008).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comfort in terminal cancer.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홍미순 (2008). 음악요법이 말기 암환자의 안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wang, E. Y. (2016). A study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music therapy and the development of music therapy strateg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8*(2), 1-20.  
[황은영 (2016). 한국의 음악치료 미래변화와 그 전망: 음악치료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20.]
- Jun, M. H. (2005). A single case study using contextual support model based music therapy intervention for a terminal pediatric pati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전미혜 (2005). 말기 질환 아동을 위한 환경적 지지 모델(The Contextual Support Model of Music Therapy)에 근거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g, Y. J. (2022). Development of well-dying awareness scale: for the middle-aged. Doctoral thesis, Kosin University.  
[정유진 (2022). 웰다잉(Well-dying) 인식 도구개발 : 중년을 대상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ang, K. A., Sim, S. Y., & Kim, S. J. (2005).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the need for child hospice car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11(1), 72-82.  
[강경아, 심송용, 김신정 (2005). 암 환자 가족의 아동 호스피스 요구 측정도구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11(1), 72-82.]
- Kim, E. H. (2015). The effects of singing activity with single-song on pain and mood in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김은혜 (2015). 단일곡 노래 활동이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및 기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J. (2018). Hospice music therapy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1(4), 109-114.  
[김은정 (2018). 한국의 호스피스 음악치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1(4), 109-114.]
- Kim, J. Y. (2011). Effects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f parents of child cancer patients on their life qualit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김재영 (2011). 소아암 환자 부모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J. Y., & Kim, Y. S. (2009). The effects of single-session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pain,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gynecologic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1(2), 21-35.  
[김지연, 김영신 (2009). 일회성 음악치료 중재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환자의 통증,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21-35.]
- Kim, N. C. (2002). Symptom management guidelines for hospice patients. *Hospice*, 23, 2-5.  
[김남초 (2002). 호스피스 환자의 증상관리 지침서. **호스피스**, 23, 2-5.]
- Kim, S. R. (2016). Impact of death awareness on well-dying and spiritual well-being in cancer patients. Doctoral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김석란 (2016).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im, S. Y. (2008). Introduction to hospice palliative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1(6), 505-508.  
[김시영 (2008).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의사협회지**, 51(6), 505-508.]
- Kim, S. Y. (2013). The study on music therapy student's current additional curricular training and need for professional competen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김소영 (2013). 음악치료 대학원생의 치료사 역량 훈련 필요성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won, S. E. (2022). Policy study on the well-dying of aged society.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권송은 (2022).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정책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D. S. (2015). The effects of musical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4(1), 363-390.  
[이대식 (2015).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적 중재 내용과 적용 효과. **특수교육**, 14(1),

363-390.]

Lee, E. H., & Choi, S. E. (2012).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y self-selected music listening on terminal cancer patients' affect and stress by pain level.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5*(2), 77-87.

[이은혜, 최성은 (2012). 선호 음악 감상의 음악치료가 말기암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른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지, 15**(2), 77-87.]

Lee, H. J. (2022). The effect of structured life review, logotherapy, music therapy,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anxiety,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quality of life.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이효정 (2022). 구조적 인생회고 의미중심 음악치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암 환자의 불안, 우울, 영적안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ee, K. E. (2017). The experience of nurses who have cared for pediatric cancer patients at end-of-life. Doctoral thesis, Kosin University.

[이경은 (2017). 말기암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Lee, S. (2006). My happy life despite pain: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usic autobiography experience of a hospice patient. *Korean Music Therapy Association, 8*(2), 22-44.

[이숙 (2006).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2), 22-44.]

Lee, Y. E. (2020). A case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erminal cancer patients through song psychotherap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이영은 (2020).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im, S. R. (2017). The effect of singing reminiscence music therapy on hospice patient's anxiety levels and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임수란 (2017). 노래회상기법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호스피스 환자의 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im, S. R., & Park, H. Y. (2018). The effect of singing reminiscence music therapy on hospice patient's anxiety level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4*(1), 223-248.

[임수란, 박혜영 (2018). 호스피스 환자의 불안과 삶의 질에 대한 노래회상 음악치료.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223-248.]

Min, O. K. (2022). A study on utilization behavior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fore death among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민옥경 (2022). 생애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행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2020 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nual report*. Goyang: Gyeonggi Province.

- [보건복지부 (2020). 2020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고양: 경기도.]
- Moon, J. Y. (2007). Music therapy in hospice car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0(2), 67-73.
- [문지영 (2007). 호스피스에서의 음악치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0(2), 67-73.]
- Munro, P. S. (1993). Music therapy perspectives in palliative care education. *Journal of Palliative Care*, 9(4), 39-42.
- Park, M. H. (2006). Effect of musical treatment on decrease of autistic.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1), 121-137.
- [박미혜 (2006). 음악 치료적 활동이 자폐성의 감소와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121-137]
- Park, S. Y. (2016). Difference of perceived pain and fatigue on hospice pati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engagement in the single-session music therap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박신영 (2016). 단일회기 음악치료 참여수준에 따른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과 피로감 지각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Robb et al. (2008).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active music engagement(AME) intervention on children with cancer. *Psycho-Oncology*, 17(7), 699-708.
- Seo, B. S., & Lee, J. K. (2021). Literature analysis to verify the content and effect sizes of music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cusing on the 2005-2020 domestic journa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2(4), 17-42.
- [서보순, 이지경 (2021). 장애유아를 위한 음악중재의 내용과 효과크기검증 문헌분석 -2005-2020년 국내 학술지논문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4), 17-42.
- Song, M. O. (2010). Development and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hospice patients. Doctoral thesis, Kei Univerisity.
- [송미옥 (2010). 호스피스환자를 위한 원예요법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Statistics Korea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causes of death*. Daejeon, South Korea.
- [통계청 (2017). **사망 원인 통계 연보**. 대전: 통계청]
- Won, J. L., & Ju, Y. S. (2008). An analytic review of research trends in music education programs for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Using experimental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tween 2000 and 2007.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1), 93-115.
- [원종례, 주용수 (2008). 장애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 중재 연구 동향 분석 - 2000-2007년 까지의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8(1), 93-115.]
- Yu, H. S. (2002). How does the listening-centered music intermediation contribute to reducing anxiety of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유현순 (2002). 감상을 중심으로 한 음악중재가 말기 암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분석대상 논문

- Hong, J. I., & Kim, K. S. (2021). The effect of song-oriented music therapy using life-retrospective techniques on the quality of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of patients and primary family caregivers in home-based hospice-palliative car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21*(1), 67-94.  
[홍정인, 김경숙 (2021).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인생 회고 기법을 활용한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환자와 주 돌봄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1), 67-94.]
- Hong, M. S. (2008).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comfort in terminal cancer.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홍미순 (2008). 음악요법이 말기 암환자의 안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wang, E. J. (2018). A study on hospice patient responses in song-focused music therapy.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황은정 (2018).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 나타나는 호스피스 환자 반응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o, G. R. (2009). The effect of music therapy activity program in the hospital school on the subjective feeling change of children with cancer. Master's thesis, Seoul Jangsin University.  
[조그리 (2009). 병원학교에서의 음악치료 활동이 소아암 환자 아동의 주관적 기분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n, M. H. (2005). A single case study using contextual support model based music therapy intervention for a terminal pediatric pati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전미혜 (2005). 말기 질환 아동을 위한 환경적 지지 모델(The Contextual Support Model of Music Therapy)에 근거한 음악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H. (2015). The effects of singing activity with single-song on pain and mood in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김은혜 (2015). 단일곡 노래 활동이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및 기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J., & Kim, K. S. (2014). Research on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mood state of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6*(2), 1-20.  
[김은정, 김경숙 (2014). 음악치료가 암환자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6(2), 1-20.]
- Kim, K. H. (2010). A qualitative study on death acceptance among terminal cancer patients via the song autobiography program : a musical experience of contemplation and hop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김경희 (2010). 노래자서전 활동을 통한 말기 암환자의 죽음수용에 대한 질적 연구. 성신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Y. L. (2009). A case study of song psychotherapy for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life review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김유림 (2009). 말기암 환자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인생 회고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E. H., & Choi, S. E. (2012).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by self-selected music listening on terminal cancer patients' affect and stress by pain level.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5(2), 77-87.
- [이은혜, 최성은 (2012). 선호 음악 감상의 음악치료가 말기암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른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지*, 15(2), 77-87.]
- Lee, J. H. (2004).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y on patients childhood cancer.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이지현 (2004). 음악치료가 소아암 환아에게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2006). My happy life despite pain: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music autobiography experience of a hospice patient.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8(2), 22-44.
- [이숙 (2006).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내 삶의 여정: 종말기 환자의 음악자서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8(2), 22-44.]
- Lee, S. H. (2009). Effects of listening christian music on the verbal expressions of patients suffering from terminal cancer.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이수현 (2009). 기독교 음악 감상이 말기 암 환자의 언어적 표출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Y. E. (2020). A case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erminal cancer patients through song psychotherap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이영은 (2020).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m, S. R., & Park, H. Y. (2018). The effect of singing reminiscence music therapy on hospice patient's anxiety level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4(1), 223-248.
- [임수란, 박혜영 (2018). 호스피스 환자의 불안과 삶의 질에 대한 노래회상 음악치료. *예술심리치료연구*, 14(1), 223-248.]
- Oh, J. E. (2015). The effects of structured voicework program on psychological stability of hospice pati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오지은 (2015). 구조화된 목소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호스피스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H. (2011). The effects of music-making and music video production intervention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cancer.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박지혜 (2011). 청소년 암환자의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음악 만들기과 뮤직비디오 적용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M. H. (2006). Effect of musical treatment on decrease of autistic.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1), 121-137.
- [박미혜 (2006). 음악 치료적 활동이 자폐성의 감소와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121-137]
- Park, S. Y. (2016). Difference of perceived pain and fatigue on hospice pati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engagement in the single-session music therap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박신영 (2016). 단일회기 음악치료 참여수준에 따른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과 피로감 지각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eo, B. R., & Hong, H. S. (2010).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ain and depression in terminal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2(1), 48-57.
- [서바른, 홍해숙 (2010). 음악요법이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2(1):, 48-57]
- Yu, H. S. (2002). How does the listening-centered music intermediation contribute to reducing anxiety of terminal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유현순 (2002). 감상을 중심으로 한 음악중재가 말기 암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문 초록>

##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과 치료중재 효과크기 검증

김 경 회 · 이 지 경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실행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방법]** 최종적으로 채택된 23개의 문헌을 크게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관련 특성, 그리고 효과크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하위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치료중재 효과크기는 Hedge's  $g$  산출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의 결과는 설정된 연구 문제에 따라 제시하였다. 첫째,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환자들은 대부분이 성인과 노인이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연구도 있었으며, 소아부터 성인까지의 투병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 관련 특성에서 중재장소·호스피스 유형은 입원형 호스피스가 많았으며, 치료 회기 수는 10회기 이하, 소요 시간은 20분~40분이 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의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치료중재의 효과크기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즉  $t$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시한 문헌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음악치료가 중재한 치료세션의 효과크기는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 요약하면, 국내에서 실시한 호스피스 음악치료 중재와 관련된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의 방향성을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한다면,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의 연구 동향과 치료중재 효과크기를 검증한 문헌이 드물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물이 발행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호스피스 환자, 음악치료, 효과크기, 국내연구, 동향

논문 접수(Received): 2023. 08. 09.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8. 09.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9. 13.